



광주교대 총학생회에서 제작한 과음 예방 스티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면서 신학기를 맞은 광주·전남 대학가의 오리엔테이션(OT·신입생 환영회)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대학들은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각종

# 미투 확산에...확 달라진 대학 오리엔테이션

## 지역대학 행사 폐지·축소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총학은 신입생 주량 체크에 음주방지 스티커 배포도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 자체를 폐지·축소하거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음주방지 스티커를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있다.

26일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등은 2018학년도 신입생 환영회와 입학식 기간 동안 음주교육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 스티커를 배포해 참가 학생들

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지난 23일 금호화소리조트에서 1일 2일간 진행된 신입생 환영식에 앞서 신입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총학생회는 특히 신입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학생들의 주량을 체크하고, 음주 여부에 대한 동의까지 받았다.

총학생회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주량 상태 등을 알리는 음주방지 스티커를 제작했으며, 환영회 기간 동안 모든 신입생의 가슴에 부착하도록 했다.

음주방지 스티커는 자신의 주량을 주변에 알려주는 술잔과 병모양으로 제작돼 'GOOD', 'BAD' 등을 새겨넣었다. 광주교대는 또 대학교 내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영식 중 강사를 초빙해 인권·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신입생 최재영(20)군은 "후배들의 음주 여부까지 세심히 살펴주는 선배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만족해 했다.

광주교대 김준식 총학생회장은 "고등 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생들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문화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지난주 실시한 신입생 환영회에서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50분에 걸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과별로 진행된 행사에서 음주 등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조선대도 지난 19일부터 단과·과별로 진행된 신입생 환영회에서 교내에 설치된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병행했다.

호남대는 아예 신입생 환영회를 폐지하고, 체험형 입학식인 '알짜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알짜스쿨'은 신입생들에게 음주 절제 교육 및 학과 체험프로그램, 심폐소생술 체험 등을 제공하고 이수증까지 수여하고 있다.

순천대는 지난 13일 열린 신입생 환영회에서 장기자랑 강요 등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했으며, 환영회가 끝난 오후 7시 전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목포대는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신입생 환영회 자체를 폐지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전남문화재단 간부 심의 성희롱 의혹 사실로 인정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문화관광재단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광주일보 2월 23일자 6면)이 사실로 인정돼 가해자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전남문화관광재단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26일 팀장급 김도(46)씨가 20대 계약직 여직원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언사를 한 의혹에 대해 성희롱을 인정했다.

외부인 2명, 노조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팀장과 여직원(직급)차이가 있고, 각종 이야기와 카톡 내용을 볼때 여직원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이었다"며 전원일치로 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유명인 미투 사건 19건

### 경찰청장 "살펴보고 있다"

'미투'(Metoo) 운동이 최근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현재 19명의 성폭력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미투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에서는 2부장(경무관)이, 일선 경찰서에서는 서장(총경)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위주로 현재 19명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처음에 9명이었다가 인원이 늘었고, 정식 수사 착수가 3건, 금명간 영장을 검토하는 사안이 1건"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돈·귀금속 보관한 밤술 버렸다...

○...순천의 한 부부가 청소일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과 귀금속을 보관한 압력밥솥을 버렸다 이틀 만에 되찾아 안도의 한숨.

○...26일 순천경찰청에 따르면 남편 A(59)씨는 지난 22일 밤 10시 10분께 순천시 장천동 자신의 집을 청소하던 중 낡은 압력밥솥을 집 앞을 지나가던 폐지수집상에게 건넸는데, 이 밥솥 안에는 아내 B(60)씨가 모아 놓은 현금 600만원과 자식들이 환갑기념으로 선물한 10돈짜리 순금팔찌가 들어있었다는 것.

○...뒤늦게 금품이 들어있던 압력밥솥을 버린 사실을 파악한 아들 부부는 허겁지겁 파출소로 찾아가 신고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이틀 동안 인근에 있는 7곳의 고물상을 찾아간 끝에 다행히 압력밥솥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전남도발 미투 운동 본격화되나... 또다른 간부 성추행 의혹

전남문화관광재단에 이어 전남도 소속 또 다른 간부의 성추행 의혹이 나오면서 전남도발(發) 공직사회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본격화 될지 주목되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청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난 24일 상급자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미투'라는 익명의 작성자는 'with you'(위드 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장님 왜 자주 손잡으려 하시나요? 무거워서 못 버팁니다. 기대지 마세요"라고 폭로했다.

상급자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떠올리는 게시물에 전남도 인콰에서 '원장'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3문장의 짧은 폭로이지만, 공직사회에서도 '미투 운동'이 본격화하는 시작점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는 팀장급

간부 김도씨가 20대 계약직 여직원 2명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건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여성 전문가들은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 특성상 직장내 성폭력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전남도 공무원 성범죄자 현황을 보면 총 5건 중 2건만이 직장내 성범죄로 확인돼 처분됐다.

윤덕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은 위계질서가 강해 평상직장이어서 비위·성추행 등 폭로가 쉽지 않다. 동료애를 들먹이며 가해자를 비호하는 일도 잦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의 직장내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경직된 시각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문화관광재단 감사요청을 미적대다가 처리하지 않고 제단 측으로 돌려보낸데 이어 이번 노조 게시판 '미투' 폭로

글 대재에서는 작성자를 다그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 직원은 26일 '감사관실'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실이 있으면 신고를 하시든지 감사를 의뢰하셔야죠. 이렇게 막연히 쓰시면 조직 전체를 옥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청렴 신문고에도도 팩트를 주시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인권옹호프랜'이라는 작성자는 "'미투'님은 그 '원장'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즉각 신고하지 못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먼저 이해해 보심이라"며 '감사관실' 댓글을 반박했다.

전남도 한 공무원은 "게시물 내용이 사실인지, 거론된 인사는 누구인지 최소한의 확인 등 후속 대처를 바랐는데 이를 만나 나온 반응이 '이런 글을 왜 올렸느냐'는 식의 댓글이었다"고 한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3·1절 앞두고 태극기 그려요



26일 광주시 북구청 로비에서 3·1절을 앞두고 열린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행사에 참가한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북구청 직원들과 함께 태극기를 그리고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경찰, 영암 하수관 사업 몰아주기 의혹 내사 착수

영암군이 추진하고 있는 110억원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법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광주일보 2월 26일자 6면)과 관련,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6일 전남지방경찰청과 영암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정비사업 입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법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공법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대상으로 '점수 몰아주

기'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입찰에 참가한 일부 업체들은 같은 대학교의 같은 학과 교수인 심의위원 2명이 부산에 소재한 특정업체에만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승리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교수가 소속된 대학교의 학과의 교수는 6명에 불과하다.

이 교수들은 '수-우-미-양-기' 채점 방식으로 진행된 2차 평가에서 공법 선정업체에최고점인 '수'를 일괄적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미' 또는 '양' 등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선 입찰 참가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싱크홀(땅꺼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전체 보수 57억원, 부분보수 10억원, 유지사후 관리비 50억원 등 총 117억원)에 선정돼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사에 나선다.

김용희기자 kimyh@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 건물 : 1,477.64㎡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85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 건물 : 1,350.03㎡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60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 건물 : 728,97㎡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광주법원 정문 앞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 건물 :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급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 건물 : 265,58㎡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대로변, 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 건물 : 11,543.18㎡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 건물 : 3,79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 건물 : 1,458,86㎡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 596,70㎡ 건물 : 948,58㎡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옥적합(전시효과 최상), 대로변, 안질병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 건물 : 2,143,08㎡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 건물 : 3,568,32㎡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 건물 : 3,998,33㎡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장덕동(근린주택) - 지상3층 토지 : 340,4㎡ 건물 : 510,09㎡ 감정이 : 721,968,950원 최저가 : 505,378,000원 수완지구, 다가구주택밀집지역
-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공장) 토지 : 27,403㎡ 건물 : 1,454,36㎡ 감정이 : 1,706,257,600원 최저가 : 1,194,380,000원
-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공장) 토지 : 2,329㎡ 건물 : 844,08㎡ 감정이 : 1,024,812,000원 최저가 : 367,292,000원
-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숙박시설) 토지 : 3,319㎡ 건물 : 2,480,7㎡ 감정이 : 3,024,288,500원 최저가 : 1,693,602,000원
-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숙박시설) - 무인텔, 2개동(32개실) 토지 : 3,673㎡ 건물 : 3,037,52㎡ 감정이 : 3,744,229,960원 최저가 : 1,677,415,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